



# 주간 통일정세

2008-23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北 ‘지도부 와해붕괴’ 극도의 경계심(6/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평화적 이행전략’이라는 글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군사전략에 매달릴 뿐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평화적 이행전략’으로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며 개방, 개방 요구도 “그러한 책동의 하나”라고 주장
  -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이 이를 위해 “반동분자, 반사회주의 분자들을 규합하고 돈을 대주면서 그들을 반정부 책동으로 적극 부추기고 있다”며 “내부와해 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지도부를 와해붕괴시키는 데도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
  - 이어 “내부와해 전략을 실현하는 데서 다음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주민계층 속에서 사상정치적으로 약한 층을 찾아내어 그에 발을 붙이고 그들을 적극 충동질하는 것”이라고 주장
  
- **민족공조와 외세공조 양립 불가(6/7, 통일신보; 6/8,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통일신보는 7일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추진을 비난하며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
  - 8일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민족공조는 애국애족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명박 정부가 “친미사대,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면서 자주통일 시대의 흐름에 도전해 나르고 있다”며 “민족공조가 애국애족이라면 외세‘공조’는 매국배족 행위”라고 주장
  
- **조평통, 한·미 무력증강에 단호 대처(6/7, 조평통 서기국 보도)**
  - 조평통은 7일 한·미 양국의 군수지원협정 체결 20주년(6.8)을 맞아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미국과 남조선 친미호전세력의 발악적 책동에 의하여 6·15 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차단되고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
  - 또 “현실은 미국과 이명박 패당이 떠드는 ‘대화’와 ‘평화’란 한갓 내외여론을 오도하고 저들의 침략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면사포에 불과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힘에 의한 대결과 전쟁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불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혁명적 기질이며 확고한 대응방식”이라고 언급



● 北, 6·15시대의 전진은 대세의 흐름(6/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15통일시대는 생명력 있고 전도양양한 애국의 시대’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지난 8년 동안 남북한 사이의 변화와 흐름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6·15 통일시대는 온 민족이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해 자주와 대단결을 지향해 나가는 역사의 새시대”라고 강조
- 또 이명박 정부가 “외세와 공조하면서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 보려”하고 있고, ‘비핵·개방·3000’ 내세워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북남대결의 낡은 시대를 되살리려”한다고 비난
- \*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를 “6·15 통일시대”로 규정

● 강성대국건설 고난 극복 독려(6/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낙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통해 강성대국으로 가는 길은 “이상과 포부로만, 희망과 열정으로만 걷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길”이라면서 “웅대한 목표를 위하여 펼쳐나선 이 길에서 한 목숨 바쳐서라도 반드시 해내”자고 강조
- 신문은 경제난이 최악이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8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시를 시찰, 중소형발전소 등을 자체 건설해 경제난을 극복했던 사례를 들며 “자강도의 노동계급처럼, 자강도 과학자·기술자들처럼, 자강도의 일군(간부)들처럼...분투하자”고 역설, ‘강계정신’을 되살릴 것을 거듭 촉구
- 아울러 “우리는 난관을 피해갈 수도 있는 그 어떤 ‘제2의 길’, ‘제3의 길’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진정한 낙원으로의 지름길인 사회주의 길에서 한치의 탈선 없이 걸어왔다”면서 “바로 그것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북한)은 오늘과 같은 승리와 영광의 언덕으로, 강성대국의 대문 가까이로 전진해온 것”이라고 주장

● 김정일의 조부, 김형직 사망 82주년 기념화환 증정(6/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부인 김형직 사망 82주년을 맞아 당·정·군 간부들이 5일 평양시 강동군 봉화리에 있는 김형직의 동상과 만경대의 묘소에 노동당 중앙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를 화환을 진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날 행사에는 최태복·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로두철·전승훈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등이 참석

나. 경제 관련

● 광복백화점 외벽 통유리로 교체(6/8, 조선신보)

- 평양 제1, 2백화점과 함께 북한의 3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광복백화점의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교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조선신



보가 8일 보도

- 평양 만경대구역의 광복거리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광복백화점은 전쟁 노병이나 영예군인(상이군인) 등 이른바 ‘유공자’에 해당하는 북한의 ‘공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 연건평 2만7천㎡에 3층 규모, 신문은 “광복백화점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년 7월)을 계기로 세워졌다”면서 “약 20년 만에 개건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한 뒤 “건물의 외벽들을 전부 통판유리로 교체하고 있다”고 소개

● **모내기 80% 완료(6/6, 조선중앙방송)**

- 북한 전역에서 모내기가 80%정도 완료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

● **北, 베이징올림픽 연계 관광특수에 큰 기대(6/5, 조선신보)**

- 북한이 8월 8일 개막되는 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한 외국인의 북한관광 특수에 큰 기대를 걸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총력
- 북한 관광 당국은 ‘아리랑 보러 평양으로 오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조선국제여행사, 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금컵여행사 등의 여행사 직원들을 중국은 물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보내 국제관광 전시회를 열고 북한이 자랑하는 “대집단체조이자 예술공연”인 아리랑을 집중 홍보하고 북한의 유명 관광지들에 대한 소개도 곁들였다고 조선신보가 5일 보도
- 또 아리랑 공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묘향산, 구월산, 개성 등의 명승지 관광을 묶은 여행상품이 “다채롭게 짜고 들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베이징올림픽을 북한 관광 특수로 연결시키려는 북한의 생각은 예년엔 8·15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 개막하던 아리랑 공연을 베이징 올림픽 개막 4일 전인 8월 4일 열기로 한 데서 이미 뚜렷이 드러남.  
\* 북한 당국이 올해부터 아리랑 공연을 저녁 시간대로 잡고, 낮 시간대엔 정권 수립 60돌을 기념해 새로 창작한 역시 10만명 규모의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를 8월 중순께부터 공연키로 한 것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를 더 만들기 위한 생각으로 보임.

● **함남 금야강발전소 공정률 60%(6/5,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함경남도 금야군에 건설하고 있는 금야강발전소(시설용량 18만kW)의 조기 완공을 위해 댐과 발전기실 등 전반적 공사를 “입체적”으로 벌여 나가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보도, 북한은 금야강 상류에 대규모 댐을 쌓아 인공호수를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여러 개의 발전소를 계단식으로 건설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인데, 김정일 위원장은 2003년 4월에 이어 2006년 9월에도 건설장을 방문, 조기 완공을 독려  
\* 금야강발전소는 1980년대 말 착공해 1993년 초까지 철도 인입선



공사(14km), 다리공사 등 기초공사를 추진하다 자금난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후 1999년 3월 쫓겨나고 재추진에 들어갔으며 2007년 여름 수해 때 수송로들이 파괴되고 설비와 자재가 침수·유실되기도 했음.

● **황해도 쌀값 석달새 3배 상승(좋은벗들 소식지 138호; 6/5, 연합)**

- 곡창지대임에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해남북도에서 쌀값이 5월 말 현재 1kg에 북한돈 4천500원~4천원을 기록해 지난 2월에 비해 3배 이상 급등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 소식지 최근호가 5일 주장
- 황해북도 사리원의 경우 쌀값이 2월 1천350원, 3월 1천700원, 4월 2천200원에 이어 5월 10일 2천500원, 25일 3천500원, 30일 4천200원으로 급등세, 쌀값 4천원대는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으로 알려진 3천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
- 사리원 지역의 옥수수 가격도 5월말 현재 1kg에 1천950원으로, 지난 2월 720원에 비해 270%가량 상승했으며 황해남북도의 옥수수 가격은 대체로 1천950원에서 2천원 사이라고 소식지는 언급
- 소식지는 특히 황해도 지역의 한 군부대에서는 군인 배급이 모자라자 “12세 이하 자녀를 둔 군관(장교)은 처자를 부모 집이나 처가에 보내 식량배급이 나오는 11월까지 떨어져 살 것”을 지시할 정도라고 주장

●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 북한사업설명회 개최(6/4, 자유아시아방송)**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가 5월 30일 헤이그에서 연 북한사업설명회에 스위스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2명이 참석해 유럽 기업들의 대북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적극 펼쳤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그러나 참석 기업인들은 북한 투자를 위한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를 지적하며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기업인들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북한에 국제적 수준의 금융기관이 없어 투자금의 송·출금이 불편한 점 ▲북한과 유럽간 물품의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통관 절차에도 문제가 많은 점 ▲북한의 투자담당 관리들 가운데 영어 능통자가 부족해 인허가나 상담시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 점 ▲북한 시장에 대한 공개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시장 진출관련 당국 및 기업소의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고 브라우어 공보관은 설명

● **北, 폴란드에 건설기능공 수십명 파견(6/3, 연합)**

- 북한이 중동 뿐 아니라 최근엔 폴란드에 수십명의 건설 기능공을 파견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코발스키 기사는 “북한의 건설 기능공들은 폴란드에서 한창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



지는 북서부 지방 도시들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북한의 건설 기능공들을 포함하면 폴란드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

● **영농철 비료 부족 아우성(6/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일 평양발 기사에서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들어선 북한의 농촌 표정을 그리면서 “나라에서는 필요한 양만큼의 비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농부들 한숨, 영농철 비료 부족은 곧바로 농작물 생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을철 곡물 수확 감소로 이어지기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난을 2008년까지 이어지게 만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

다. 사회·문화 관련

● **김일성대에 ‘최상급 수영장’ 건설(6/8,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에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북한 내 “최상급 수준”의 수영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선예술, 영화도입부 “입체구성” 강조(2008년 3월호, 조선예술)**

- ‘조선예술’ 최근호(2008.3)는 중요한 선전도구의 하나인 영화 제작과 관련, 도입부에서 주제를 암시하면서도 결말을 쉽게 짐작할 수 없도록 입체적으로 구성할 것을 강조
- 잡지는 ‘영화의 첫머리에서 관중과의 교감문제’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화에서는 첫인상이 중요하다”며 “첫머리가 좋아야 관중에게 친근감을 안겨줄 수 있고 극적 기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작이 단조롭고 밟딱(속이나 생각이 얇은 것)하게 된다면 기대와 흥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 잡지는 도입부를 잘 만든 대표적 작품으로 예술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와 실존인물을 그린 ‘대홍단책임비서’ 등을 꼽음.
  - \* 2006년 제작돼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여학생의 일기’는 ‘영화광’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작 과정을 직접 지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2007년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시사회가 열려 세계 영화인들로부터 “신선하다”는 호평을 받은 바 있음.
  - \* ‘대홍단책임비서’는 당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솔선수범한 실존인물인 량강도 대홍단군 당책임비서인 김성진의 모습을 그린 영화로 1997년 9월 제작

● **조선소년단의 창립 62돌을 기념하는 학생소년예술축전 개최(6/6, 조선중앙통신)**

- 만 7세부터 14세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선소년단의 창립 62돌을 기념하는 학생소년예술축전이 6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김종린 당



중앙위 비서, 리용철 청년동맹 1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 시작(6/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이 6월 5일 량강도 혜산시에서 시작됐다고 보도
- **北 여자축구, 중국 꺾고 아시안컵 우승(6/9, 연합뉴스)**
  -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아시안컵 우승컵을 차지
- **北도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보호에 관심(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를 민족 장래를 위한 관건적인 사업으로 간주하는” 북한 당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서명국으로서 온실가스 완화를 위한 부문별 전략을 발표하고 유엔협약에 따르는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에너지 효율과 자연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을 전개, 화력발전소에 깨끗한 연소기술과 동력용 순환비등층 연소보일러(연료를 끓는 액체와 비슷한 상태로 유동시키며 연소시키는 보일러)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도입
- **논두렁 새참에 ‘에스키모’도 인기(6/5, 조선신보)**
  -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을 일컫는 말인 ‘에스키모’가 모내기가 한창인 평양시 인근 농촌에서 논두렁 새참거리로도 등장, 조선신보는 5일 북한의 대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곳으로 잘 알려진 ‘5월 1일경기장’ 상표를 붙인 아이스크림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지금은 평양 뿐아니라 지방도시들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
  - 각종 ‘에스키모’의 수요가 이같이 증가함에 따라 평양시 룡라도에 있는 5월1일경기장의 생산작업반은 하루 3만여개로 생산량을 늘림.
- **1그루 베면 10그루 심자, 녹화 운동 전개(6/2, 노동신문)**
  - 북한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홍수·가뭄과 그로 인한 식량난의 근원중의 하나인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1그루 베고 10그루 심기’ 운동을 전개
- **김일성 주치의 양형만 사망(6/4,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고 김일성 주석의 주치의였던 양형만 국가과학원 교수가 3일 ‘불치의 병’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 6자회담 훼손은 유관국 이익 훼손(6/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내 “강경보수세력들”이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협상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해치는 것은 곧 미국 자신을 포함한 유관국들 모두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주장
- 또 “분명한 것은 6자회담과 국제정치의 흐름이 미 강경보수세력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되고 있다”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국제사회의 총의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주장

#### ● 성 김 한국과장 10~11일 방북, 북핵 불능화 논의(6/7, 연합)

-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핵 불능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11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6일 발표
- 성 김 과장의 방문목적에 대해 “핵 불능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시설 11개중 8개에 대한 불능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능화 작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에 대해 그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매코맥 대변인은 설명
- 매코맥 대변인은 성 김과장이 방북에 앞서 서울에서 한국측 6자회담 대표들과 북핵 6자회담 산하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중국측 6자회담 대표들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언급

#### ● 6자 에너지실무회의 10~11일 서울·판문점 개최(6/3, 외교통상부)

- 정부는 북한의 핵신고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5자 공여국회의와 6자회담 경제·에너지실무그룹 수석대표 회의를 10일 서울과 11일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발표, 이에 앞서 남북간 사전 준비협의를 5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

#### ● 北, 에너지 지원속도에 강한 불만(6/5, 연합)

- 북한이 비핵화에 따라 제공받기로 돼 있는 경제·에너지 지원의 속도가 더딘데 대해 북핵 6자회담 산하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우리측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 현학봉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은 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남·북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에너지 지원이 자국이 이행하고 있는 핵시설 불능화 속도에 못미치고 있음을 수차례에 걸쳐 지적했다고 회담 소식통은 전언



- 현 부국장은 특히 “지원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현재 우리 무력화(불능화)가 80% 이상 추진되는 반면에 전반적인 에너지 협조사업은 36%선에서 되고 있어 매우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응당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
- 남측은 이에 “서로의 조치를 수량화할 수는 없지만 의장국으로서 북측의 우려를 접수해 나머지 5개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측이 자신들의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고 진지했다”고 언급, 북측은 또 지원받을 발전 설비자재의 종류와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남측에 전달하였으며, 남측은 6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5자 공여국회의에서 북측의 요청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경제·에너지 지원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
- \*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은 북한에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해야 함. 북한은 불능화 조치 11개 중 8개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3개 조치 중 핵심인 폐연료봉 인출작업도 총 8천개 중 3천200개 정도가 진행됐지만 에너지 제공은 중유로 환산하면 총 95만t 중에서 33만여t(설비자재 계약분까지 포함하면 39만t)만 이뤄져 상대적으로 속도가 처짐.

## 나. 북·미 관계

### ● 북미관계 주목되는 변화 평가(6/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조미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호전세력들은 조선반도에서 정세완화의 기미가 보일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이끌어가고 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은 조미회담과 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범죄행위”라고 강조
- 노동신문은 이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체 군사적 행동을 삼가”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현 북미관계와 핵협상, 한반도 정세를 이례적으로 긍정·낙관하는 표현들이 등장
- 신문은 “오늘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과 조미관계에서는 주목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지금 조미 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접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서는 조선반도 핵문제를 포함하여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이 토의되고 있다”고 지적
- 신문은 또 이러한 북·미간 접촉과 협상이 6자회담 재개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비교적 낙관



- **美 지원 식량 6월말 北에 첫 도착(6/4,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1차 선적분 밀 3만7천t과 옥수수 2만4천t이 각각 6월말과 7월말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

#### 다. 북·중 관계

- **세관총국대표단 귀환(6/7, 평양방송)**
  - 지영식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세관총국대표단이 방중 일정을 마치고 7일 평양으로 귀국
- **北, 베이징 올림픽에 힘 보태기(6/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이례적으로 베이징 현지 취재기를 통해 올림픽관련 생생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보도, 신문은 ‘중국기행-올림픽 준비로 들끓는 친선의 도시’ 제목의 글에서 올림픽 주경기장의 건축 면적은 25만8천m<sup>2</sup>에 달하고 좌석수는 9만1천석이나 되며 이 경기장에서 개·폐막식이 진행된다는 등 주경기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세계 각국의 ‘평화와 친선의 새’가 날아와 올림픽경기대회 개막 행사를 하게된다는 의미에서 새둥지 모양으로 건설됐다”고 설명
- **中시진핑, 17~19일 방북(6/5, 조선중앙통신;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6월 17~19일 북한을 공식 방문,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된 시 부주석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해외 방문 길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북한 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17~19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는다”며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은 양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 공통 관심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 \* 시 부주석은 북한을 방문한 뒤 19일부터 25일까지 몽골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예멘 등 4개국을 잇따라 공식 방문한 뒤 귀국
- **주북 中대사, 대북경협 4대분야 제시(6/4, 신화통신)**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4일 “중국은 상호 무역과 투자를 늘려 기초시설건설, 광산자원개발, 광산품가공, 변경지구무역왕래 등 4대 분야에서 조선(북한)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류 대사가 제시한 대북경협 4대분야는 지난 3월 신임 인사차 자신을 방문한 리 무역상을 만난 자리에서 “중조 양국 지도자가 정한 정부인도, 기업참여, 시장운영 원칙에 입각해 조선측과 새로운 시기에 걸



맞은 신사고로 양국 경협을 심도있게 토론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실질적 협력을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한 언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간 것으로 중국이 앞으로 북한과 경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됨.

● 北·中, 세관협조협정 체결(6/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을 방문 중인 북한 세관총국 대표단이 3일 중국과 세관협조협정을 맺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 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세관분야에서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이 3일 베이징에서 조인됐다”고 밝혔으나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물연구소, 中과 건강음료 합작 추진 (6/3, 조선신보)

- 북한 고려의학과학원의 고려생명수기술센터가 건강음료 생산을 위해 중국 기업들과 합영합작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라. 북·러 관계

● 북·러 라진항 합영기업 법적문제 합의(6/7,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은 최근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라진항 합영기업 창설과 관련한 모든 법적 문건들”에 대해 합의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7일 보도
- 6월 3일 라선시에 도착한 아나톨리 월로진 사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과 북한의 해당 부문 대표단간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음. 양측은 또 “가까운 시기에 합영회사 이사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하산-라진 사이의 철도 임대 대상을 확정하고 철도 임대계약을 체결할 데 대한 문제를 합의했다”고 방송은 보도
- 러시아 철도주식회사 대표단은 7일 열차편으로 북한을 출국

마. 북·일 관계

● 北·日, 11~12일 공식 협의 개최(6/7,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7일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워킹그룹 회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 실무자 협의를 갖고 6월 11~12일 공식 협의를 개최기로 합의
- 북핵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북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오는 11~12일 베이징에서 공식 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사이키 국장은 “이날 회담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



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도 이를 경청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북일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

- 그러나 사이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논의는 내주 열리는 공식 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

### ● 조총련, 조직 적극적으로 확대(6/4, 조선신보)

- 조총련은 5월 30일 일본 도쿄(東京) 조선회관에서 중앙위원회 제21기 제2차회의를 열어 조직 확대를 위한 ‘동포 되찾기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조총련은 이를 위해 동포 되찾기 운동의 모체인 ‘동포 되찾기 운동추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각 계층 동포들에 대한 방문과 접촉을 확대하는 동시에 민족 의식을 불어넣는 교육사업에 힘을 쏟기로 함. 조총련 서만술 의장과 허종만 책임부의장을 비롯한 부의장단,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고들, 재일조선인 역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

### 바. 기타외교 관계

-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이 평양출발(6/7, 조선중앙방송)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스웨덴 국경일 기념하여 스웨덴 국왕에게 축전 발송(6/6, 조선중앙통신)
- 김용삼 철도상, 철도협조기구 제36차 장관회의에 참가(6/5, 조선중앙통신)
  - 우크라이나에서 열리는 철도협조기구 제36차 장관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김용삼 철도상이 5일 평양을 출발
- 호세 몬타노 대사를 비롯한 북한 주재 쿠바대사관 관계자들 평양에서 농사지원활동 전개(6/4,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압둘라 알 사아디 신임 북한 주재 오만대사를 만나 환담(6/4, 조선중앙통신)

## 3. 대남정세

### 가. 대남보도

- 北,李大통령 방중 논평(6/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4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일부 나라들을 방



문해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그들의 설명을 꺾등으로 흘려보내면서 북과 남의 화해·협력을 바란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

## 나. 남북교류

### ● 남북합영 섬유공장 8월 평양서 본격 가동(6/7, 연합)

- 남한의 기업과 북한이 공동 투자해 함께 경영하는 합영회사인 ‘평양 대마방직’이 오는 8월 평양에 설립돼 본격적인 가동
- 안동대마의 김대표는 6월 10일 개성을 통해 육로로 34개 컨테이너 분량의 마무리 공장 설비를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고 8월 15일을 전후로 준공식을 갖고 생산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힘. 또 “공장이 준공되면 우리 측 간부와 기술자 25명 정도가 상주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면서 “남북간 경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평양대마방직은 총자본 3천만 달러 가운데 안동 대마방직이 1천500만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새별총회사가 현금 대신 대마 재배지, 공동부지, 일부 공장 건물 등으로 공동투자, 공장건물은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새로 지은 5개 동과 낙랑구역에 있는 기존 건물을 사용하며 북한 근로자 1천800여 명이 일하게 된다고 안동 대마 측은 설명
- \* 안동대마방직과 북한의 합영회사 설립은 2003년 11월 첫 계약이 체결됐으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2005년 10월 1일 평양에서 창업식을 가졌으며 최근 공장 건립 등에 속도를 내 계약체결 5년만에 결실을 맺게됨.

### ● 金통일, 6·15 8주년행사 참석 긍정 검토(6/6,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6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남북관계 주무부서장인 김 장관이 6·15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면 북측이 절대시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현 정부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김 장관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지, 단순 참석만 할지는 미정

### ● 北, 남북회담 수석대표 작년말 경질(6/5, 마이니치 신문; 연합)

- 남북한 각료급 회담에서 북한측 수석대표로 활약했던 권호웅 내각책임참사가 작년말 경질됐음이 북한 정권에 가까운 관계자를 통해 밝혀졌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5일 베이징(北京)발로 보도
- 권 참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대남교섭을 담당해온 한국통으로, 경질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교섭 과정에서 쉽게 타협했다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한 점 등이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옥수수 5만톤 지원, 북(北)에 먼저 제안(6/4, 연합)**

- 정부는 북한에 옥수수 5만t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북측에 이를 위한 접촉을 제안했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하중(金夏中) 통일부 장관이 4일 밝힘.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내·외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우리 제의에 조속히 호응해 오길 바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김 장관은 “이번 옥수수 지원은 북측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 회담 등을 계기로 우리측에 요청했던 것”이라며 “정부는 작년 12월 옥수수 5만t 지원을 결정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고 중국이 식량 수출 쿼터제를 적용하는 바람에 집행이 늦춰졌다”고 언급, 김 장관은 “작년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을 때는 옥수수 가격이 t당 350달러였지만 현재는 420달러 정도여서 당초 책정해놓은 금액으로는 5만t을 다 줄 수 없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한 5만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개성공단 기금借主 현지법인으로 전환(6/2, 통일부)**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은 개성공단 초기 입주업체들의 기금 차주(借主)를 모기업에서 개성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2일 발표
- 당국자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협력기금을 대출받으면서 차주를 국내 모기업으로 등록한 탓에 모기업 부채비율이 상승, 회사 신용에 영향을 준다’며 차주 전환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차주 전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언급

북한연구실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핵협상 이번주 ‘고비’... “방향성 가늠될 것”(6/8)**

-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북핵협상에 정통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8일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흐름에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이번 주가 북핵 협상의 고비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핵 불능화(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문제가 논의될 북·미 간 실무협약(10~11일)이 평양에서 예정돼 있고,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11~12일)도 베이징에서 열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를 협의할 6자 실무그룹회의도 11일 판문점에서 개최됨.
  - ◇ “핵신고·불능화 마무리짓자” = 가장 주목되는 만남은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방북에서 이뤄질 북·미 간 실무협약임. 이번 회동은 작년 ‘10.3합의’ 이후 진행된 핵신고 및 핵불능화와 관련된 북·미 간 일련의 협의를 마무리짓는 자리가 될 가능성 큼.
  - ◇ 북·일관계 진전 계기 마련하나 =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9개월 만에 재개되는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금 해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 에너지 지원 속도 높이는 방법 찾을까 = 11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는 북한의 요구로 개최되는 것임. 북한은 그동안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핵신고도 앞두고 있는 데 이에 상응해 받기로 한 경제·에너지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음.

#### ● 남북, 오늘 6자 에너지실무회의 사전협의(6/5)

- 북핵 6자회담 산하의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남북 수석대표가 5일 판문점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인 경제·에너지 제공 문제를 협의.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5자 공여국회의와 11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6자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에 앞선 사전 협의 성격임.
- 이번 협의에는 남측에서 황준국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북측에서는 현학봉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북측이 희망하는 발전 설비자재의 종류와 지원방법에 대해 주로 협의할 예정. 북핵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은 북한에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게 됨.

#### ● 北 “6자회담 훼손은 유관국 이익 해치는 것”(6/7)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7일 미국 내 “강경보수세력들”이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협상에 제동을 걸려 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해치는 것은 곧 미국 자신을 포함한 유관국들 모두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 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주장

#### ● “성 김 한국과장 10~11일 방북...북핵 불능화 논의”<미국무부>(6/7)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과장이 8일 워싱턴을 출발, 먼저 서울을 방문한 뒤 10일 평양에 가서 북한 6자



회담 대표들과 핵 불능화 문제를 논의하고 11일 서울로 돌아와 12일 워싱턴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성 김 과장의 이번 방문목적에 대해 “핵 불능화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시설 11개중 8개에 대한 불능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불능화 작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지에 대해 그들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매킨 맥 대변인은 설명했다.

#### ● “6자 수석대표, 20일 전후 회동 전망”(6/4)

- 정부 고위 소식통은 4일 “중국측이 현재 6자회담 재개 일정을 잡기 위해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14일, 도쿄)이나 월말 G8(서방선진8개국) 외교장관회담 일정(26~27일, 교토) 등을 감안할 때 20일 전후에 6자 수석대표 회동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이어 “북·미 간 핵 신고 협의를 위한 전문가 회의도 조만간 가동될 것”이라면서 “플루토늄 생산량 검증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협회는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6자 수석대표회담 일정과 전문가협회의 일정은 상호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6자회담 참가국들은 가급적 재가동된 6자 프로세스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동 직후 6자 외교장관회담을 갖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 “시리아, 북-시리아 핵거래의혹 UN사찰단 초청”<美紙>(6/2)

- 시리아가 작년 9월 이스라엘 공군이 폭격한 건물이 북한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건설중이던 핵원자로였다는 의혹을 조사토록 유엔 사찰단의 방문을 초청했다고 미 일간지가 2일 보도
- USA투데이 인터넷판은 이날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IAEA 이사회에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IAEA 사찰단이 시리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과 시리아간의 비밀 핵거래 의혹이 IAEA의 조사를 통해 확인될 지 주목됨.

#### 나. 미·북 관계

##### ● 미국무부보고서 ‘북한판 효녀심청’ 사례 소개(6/8)

- 미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을 부양하려다가 인신매매범들에게 속아 중국으로 팔려가는 북한 여성의 처절한 삶을 소개했다.
- 다음은 보고서에 소개된 ‘북한판 효녀 심청’ 소영 양의 사연. 올해 19세인 북한 여성 소영 양은 키가 5피트(약 150cm)도 채 안되고, 매년 북한에서 반복되는 식량난에 의한 영양부족 때문임. 그녀는 더 나



은 생활을 기대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왔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현실은 성적(性的) 착취라는 악몽뿐임. 그녀를 ‘고용한 사람’은 그녀에게 노동의 대가로 하루 약 1.4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음. 그녀는 그 돈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계획이었음. 그러나 ‘고용주’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사기를 당한 그녀는 몇 달 동안 이리 팔리고 저리 팔려갔음. 어느 40세 중국인에게 팔려가기 며칠 전 소영 양은 다행히 어느 목사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탈출했으나 3년 후 그녀는 북한에 강제로 송환됐음. 북한에서 6개월 동안 수감됐던 그녀는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음. 인신매매범들이 그녀를 다시 납치해 그녀를 팔기 전에 인신매매범들은 반복해서 그녀를 성폭행했고, 그녀의 ‘새 남편’도 그녀가 탈출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그녀를 강간했음. 그녀는 지금 숨어 살고 있음. 소영 양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지만, 그들은 갈 곳이 없다”면서 “중국으로 가는 길 외에 다른 루트가 없다”고 말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음.

● “北, 美 식량원조 계기로 北美관계 개선 기대”(6/5)

-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5일 평양주재 특파원발 기사에서 북한 언론매체들을 인용, 미국의 식량원조는 양국 인민간의 이해와 신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
- 신문은 최근 들어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영향으로 북미간에 식량원조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하고 양 측은 식량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미국은 지난달 16일 50만t 대북식량원조 계획을 발표하고 이중 10만t은 미국의 비정부기구를 통해 나머지 40만t은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제공할 것이며 1차 원조분은 이달 말 이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프리처드 “北, ‘핵보유 이스라엘은 美와 친구’ 주장”(6/5)

- 북한측 관리는 지난 4월 하순 평양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게다가 우리는 (핵무기를) 조금 밖에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프리처드 소장이 4일 전했다.
-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회견에서 “북한은 이른바 ‘북핵 3단계’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며, 미국과의 완전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진 뒤에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입장은 핵무기 폐기 뒤에 관계정상화를 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 北 인신매매 최악등급...두만강·압록강유역 위험지역(6/5)

- 미국은 올해도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상 최소한의 기준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등급인 3등급 국가에 포함시켰음. 미 국무부는 4일 공개한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주요한 사례로 북한의 탈북난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소개하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이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 위험지역이라고 지적

- 한국은 최상등급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고, TVPA가 제정된 지난 2000년 10월 이후인 2001년 3등급에서 출발했으나 2002년 1등급으로 올라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美조사단, 평북·자강도서 식량난 현장조사 돌입(6/5)**

- 북한의 식량부족 실태를 조사할 미국의 평가조사단이 4일 평안북도와 자강도로 출발했다고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4개 비정부기구 관계자로 구성된 조사단은 현지 지방당국과 협의를 거쳐 향후 2주간 병원과 마을 등을 상대로 식량부족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체적인 원조식량 배분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일 계획

● **“美的 대북 식량지원 1차분 이달말 北 도착”<RFA>(6/4)**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1차 선적분 밀 3만7천t과 옥수수 2만4천t이 각각 이달말과 내달말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 이를 위해 미 정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서부 워싱턴주의 항구에서 밀 선적을 시작했고 오는 16일부터는 남부 루이지애나주 항구에서 옥수수 선적을 시작함.
- 미국산 밀은 북한에 도착하면 세계식량계획(WFP)가 북한에 보유중인 비축식량과 혼합돼 북한내 공장에서 학교 급식용 어린이 영양과자와 임신부용 인스턴트 국수 등으로 가공돼 주민들에게 공급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WFP를 인용해 같은 날 전했다.
-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달 21일 WFP에 대북 식량지원용 75만유로(120만달러)를 기부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 **“美에서 北인권 영화·책 잇따라”<VOA>(6/3)**

-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넷판은 “올해 들어 북한관련 영화와 책이 크게 붓물을 이루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삶을 재구성한 영화 ‘크로싱’은 현재 미국에서 배급사를 찾고 있고, 북한 수용소 생활을 다룬 영화 ‘평양의 어항(가제)’도 한·미 합작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
- VOA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소재로 한 뮤지컬 ‘요덕스토리’가 2006년 10월 미국에서 순회 공연된 후 북한 인권을 다룬 다큐멘터리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조선일보가 제작한 탈북자 다큐멘터리 ‘천국의 국경을 넘다’를 미국 일부 방송사가 방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의 한 다큐 전문 영화사는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공안에 체포돼 4년간 복역한 김성환(미국명 스티브 김)씨의 이야기를 다



큐멘터리로 제작해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 전 발표할 계획이고 전했다. 영상물 외에도 탈북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심마니(제프 탈라리고 作)'와 '나는 강을 건널 것이다(호프 폴린치바흐 作)'도 지난 4월 미국에서 잇달아 출간됐음.

● “美 하원외교위원장 김정일 선물은 기념패” <RFA>(6/3)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하워드 버먼(민주) 위원장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보좌관 일행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선물은 30달러짜리 기념패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했다.
- RFA는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을 인용,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한 버먼 위원장의 ‘선물’은 미 하원 문장(紋章)이 새겨진 기념패라고 소개

● 대북 식량지원 전문가회의 하루 연장 RFA>(6/3)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 평양에서 시작된 북미간 전문가회의가 일정을 하루 연장해 3일까지 열린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미국 대표단이 애초 2일 전문가회의를 끝낼 예정이었지만 하루 더 “추가 협의”를 하고 3일 오후 평양을 떠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 美 국무부, 김정일 사망설 부인(6/2)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위원장 사망설이 나돌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입증할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사망설이 나돈 지난달 26일 이후 제1727사관양성 군부대와 제836군부대 산하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를 시찰하고 제324군부대와 제604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으며 함흥시 2.8비날론연합기업소와 함흥의학대학을 ‘현지지도’ 했다고 보도

다. 중·북 관계

● 北, 베이징 올림픽에 ‘힘 보태기’(6/5)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이례적으로 베이징 현지 취재기를 통해 올림픽관련 생생한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 노동신문은 ‘중국기행-올림픽 준비로 들끓는 친선의 도시’ 제목의 글에서 올림픽 주경기장의 건축 면적은 25만8천m<sup>2</sup>에 달하고 좌석수는 9만1천석이나 되며 이 경기장에서 개.폐막식이 진행된다는 등 주경기장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세계 각국의 ‘평화와 친선의 새’가 날



아와 올림픽경기대회 개막 행사를 하게된다는 의미에서 새둥지 모양으로 건설됐다”고 설명했다.

● **中 “시진핑 17~19일 방북” 발표(6/5)**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진핑 부주석이 북한 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17~19일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 친 대변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과 회담을 갖는다”며 회동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국은 양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해 공통 관심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 이번 방문이 북중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북 中대사, 대북경협 4대분야 제시”(6/5)**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4일 “중국은 상호 무역과 투자를 늘려 기초시설건설, 광산자원개발, 광산품가공, 변경지구무역왕래 등 4대 분야에서 조선(북한)과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
- 통신에 따르면 류 대사는 이날 리룡남 북한 무역상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초대회에서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쌍방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양국 인민의 복리를 만들어내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번영에도 유리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北물연구소, 中과 건강음료 합작 추진<조선신보>(6/3)**

- 북한 고려의학과학원의 고려생명수기술센터가 건강음료 생산을 위해 중국 기업들과 합영합작 및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
- 신문은 이 센터의 김수일(53) 소장이 각종 “건강을 위한 물”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하고 “최근에는 몽골, 러시아 등에서도 (센터와) 기술교류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고 소개함. 물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고려생명수기술센터는 1993년 설립되었음.

● **中법원, 마약밀반입 北무역일꾼에 15년형 선고(6/2)**

-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2일 북한 압록강무역회사 직원 리모(58)씨에 대해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개인재산 5만위안을 몰수
- 법원은 또 리씨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려고 한 조선족 주모씨와 라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사형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2년간 유예



## 라. 일·북 관계

### ● 日, 對北 공식대화 재개 평가...기대는 별로(6/8)

- 일본 정부는 7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일 양국의 비공식 실무자 협의에서 지난 9월 이후 중단된 공식 협의를 재개하기로 한 점을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음. 그러나 일본이 대북 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앞세우고 있는 자국민 납북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아사히(朝日)신문은 북한이 대북 관계개선에 의욕적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대미관계가 좋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조지 부시 정권의 임기 중에는 먼저 일본에 양보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음.

### ● “在日 탈북 여성, 조총련 상대 첫 손해소”(6/8)

- 일본에 살다 북한으로 이주한 뒤 탈출한 재일동포 여성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1천만엔(약 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는 약 170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으나 일본에 있는 탈북자가 과거의 조총련계 동포 귀환사업과 관련해 조총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자는 지난 2005년 북한을 탈출해 오사카(大阪)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으로, 1963년 부모를 따라 북한에 건너간 뒤 강제수용소 등 비참한 생활 끝에 탈출했다면서 조총련이 북한 내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지상 낙원’으로 선전하는 바람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 ● 北-日, 11~12일 공식 협의 개최(6/7)

- 북핵 6자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북일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오는 11~12일 베이징에서 공식 회담을 개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사이키 국장은 “이날 회담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도 이를 경청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북일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담에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 北-日, 오늘 베이징서 실무협의 재개(6/7)

- 북한과 일본이 7일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6자회담의 북일 국교정상화 워킹그룹 회의 재개를 위한 비공식 실무자 협의를 갖음. 북한의 송일호 조일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6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



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반 동안 주중 일본대사관에서 북일 실무협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가 대북 수교협상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국민 납치 문제와 관련,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온 북한이 얼마나 달라진 대응을 보일 지가 주목
- 또한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

● “北·日, 양자 대화 조만간 재개”(6/5)

- 일본과 북한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양국간 직접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5일 보도. 신문은 양국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양자 직접 대화가 실현되면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항공 ‘요도호’ 납치범의 송환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 기타

● “北 남성, 기아로 일가족 살해 후 자살” <英紙>(6/8)

- 북한의 한 가장이 기아에 허덕이다 아내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 북한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고 영국 선데이 타임스가 보도
- 평안남도 신양에 사는 이 남성은 당국의 단속으로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인 국수 장사를 못하게 되자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죽도록 구타하고 세 살짜리 아들과 두 살짜리 딸을 목 졸라 죽인 뒤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음.

● 北도 워싱턴에 영국계 기업 로비스트로 등록(6/7)

- 북한이 워싱턴에 북한을 위한 로비스트를 2004년부터 등록해온 것으로 최근 확인됐으나 그동안 로비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의 뉴캐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라시아산업개발연구소(Institute for Business Development in Euro Asia Limited)는 미국 법무부의 외국대리인등록법에 따라 2004년 9월21일 북한 로비스트로 정식 등록 절차를 마쳤음. 현재까지 북한 로비스트로 등록된 기업으로는 이 영국계 기업이 유일함.

● “식량난 속 평양 동요 없어” <佛사업가>(6/7)

-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나 당국의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잘 이뤄지고 질서가 유지돼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는 “별다른 사회적 동요”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프랑스 사업가인 에릭 라포그씨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7일 밝혔다.



- RFA에 따르면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한 라포그씨는 외부 언론을 통해 북한에서의 아사자 발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설 등으로 북한 내부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으나 “북한은 여전히 잘 통제되고 질서 정연했다”고 방북소감을 밝혔다.

#### ● 두바이 건설현장에 북한 노동자가(6/5)

- 5일 두바이 현지 업체에 따르면 두바이 도심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공사중인 교육, 주거 복합단지 현장에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단체로 일하고 있음. 또 두바이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공사 현장에도 소규모로 북한 노동자가 흩어져 고용된 상태며 UAE 제3의 도시인 알-아인에서도 북한 인부를 종종 볼 수 있음. 이들 인력을 모두 합하면 1천500여 명이 된다는 게 두바이 현지의 추정치며 북한 인력이 받는 임금은 월 300달러 정도로 알려졌다.
- 북한은 그간 미수교국인 UAE의 현지 업체와 인력 고용계약을 맺어 쿠웨이트나 카타르를 경유해 두바이 등에 인력을 수출해 왔음. 쿠웨이트와 카타르에도 북한 노동자 3천~4천명 정도가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는 중임.

#### ●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 북한사업설명회 개최<RFA>(6/4)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일 헤이그에서 연 북한사업설명회에 스위스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 2명이 참석해 유럽 기업들의 대북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적극 펼쳤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
- 이 상공회의소의 카스 브라우어 공보관은 북한 외교관들이 설명회에 참석한 네덜란드 기업인들에게 북한의 투자환경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 기업인들은 북한 투자를 위한 통신, 통행, 통관 등 ‘3통 문제’를 지적하며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RFA는 보도
- 기업인들은 북한 외교관들에게 ▲북한에 국제적 수준의 금융기관이 없어 투자금의 송·출금이 불편한 점 ▲북한과 유럽간 물품의 통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통관 절차에도 문제가 많은 점 ▲북한의 투자담당 관리들 가운데 영어 능통자가 부족해 인허가나 상담시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 점 ▲북한 시장에 대한 공개정보가 부족하고 북한 시장 진출관련 당국 및 기업소의 연락처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 브라우어 공보관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북한 외교관들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러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네덜란드 기업들의 관심이 꾸준히 커지고 있어 2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북한 시장 개척단이 오는 9월 평양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UNDP 총재 “북한내 사업재개 검토”(6/3)

- 유엔개발계획(UNDP)은 북한의 자금전용 의혹을 UNDP가 알 수 없었다는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환영하면서 북한내 사업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 케말 더비스 UNDP 총재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작년 3월 북한에서 철수한 이후 중단됐은 북한내 작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UNDP는 특별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나오자 이를 UNDP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공개했다.

● “UNDP, 北 자금 용처 몰라”<유엔패널>(6/2)

- 북한의 유엔개발계획(UNDP) 자금전용 의혹을 조사 중인 유엔의 한 특별위원회는 UNDP가 북한의 자금 용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2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또 로이터가 입수한 353페이지 분량의 최신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된 UNDP의 자금의 규모가 700만 달러라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에 제공한 UNDP의 자금이 북한의 돈세탁, 무기거래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엔에 의해 해고됐다는 북한주재 UNDP의 한 계약직 직원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 보고서는 북한이 UNDP의 자금 272만달러를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되는 마카오은행의 한 평양관련 업체 계좌로 송금했다고 미국측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UNDP 관리들로서는 이런 것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알 만한 이유가 없고 그런 증거도 없다”고 지적

● 프라하서 운행하던 낡은 전차 북한에 수출(6/2)

- 일간 블라다 프론타 드네스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체코 교통 당국은 최근 중고 전차 20대를 1대당 65만 체코 코루나(한화 4천100여만원), 총 1천300만 코루나를 받고 북한에 판매. 중고 전차는 평양에서 운행될 예정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美기지가전 한국 부담액 8조9천여억원(6/8)

- 주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8조9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반환부지의 용도변경 및 매각전망이 불투명해 최대 2조6천억원 이



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음.

- 8일 국방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2개월간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이하 사업단)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우리 측의 기지이전 부담액은 당초 5조5천905억원에 평택 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건설비 추가분 등이 더해져 모두 8조9천478억원에 이르며, 기지이전 비용 중 우리 측 부담액은 작년 3월 5조5천905억원으로 추산된 뒤 평택 특별지원비 1조원과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평택기지 밖 SOC(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비 등이 합쳐지면서 7조9천478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초 다시 1조원이 증가해 8조9천478억원으로 예상됨.

#### ● 부시 “30개월 이상’ 수출안도록 구체 조치”(6/7)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 “한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국에 들어가서는 안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음.

#### ● 버시바우 “재협상과 유사한 해결책 도출”(6/5)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5일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형식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재협상과 같은 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패키지 정책에는 여러 다양한 정책이 들어갈 수 있다.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이 전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에서 이 문제가 어떤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 美, 8군사령부 하와이 이전...새 전투조직 결성(6/5)

-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을 전후해 주한 미 8군사령부(사령관 조지프 필 중장)를 하와이로 옮기는 대신 한국에 새로운 전투조직을 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 군 소식통은 5일 “현재 행정사령부의 기능에 그치고 있는 미 8군사령부를 하와이로 옮기고 대신 전투·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전방전투지휘소(OCPK:Operational Command Post-Korea)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OCPK는 정보와 작전·지휘통제 인력을



비롯, 실제로 전투를 지휘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 기능이 보강되는 일종의 전투작전 수행조직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美, 한반도 유사시 駐日기지 임의사용” 공문서 발견<아사히>(6/4)

-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주일미군기지를 일본측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양국간 밀약을 담은 ‘조선유사의사록’이란 공문서가 미국 미시간대 포드대통령도서관에서 발견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이 문서는 1960년 6월23일 후지야마 아이이치로(藤山愛一郎) 당시 외상과 더글러스 맥아더 주일 미대사가 서명한 의사록임. 이 문서는 닉슨 정권 말기인 1974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기지 사용과 관련된 미국 정권내의 논의를 기록한 메모랜드에 첨부된 형태로 보존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음.

● 버시바우 “30개월이상 쇠고기 반입안되게 노력중”(6/4)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는 4일 “한국민이 받아들일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한국 식탁에 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Substantial)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전했다.
-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문 대표와 시내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국 국민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문 대표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대해 미 대사관측은 “한국 식탁에 반입되지 않도록’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는데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한국 국민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

● 美 백악관, 쇠고기 관련 한국 움직임에 “우려”(6/4)

- 미국 백악관은 3일 한국정부가 30개월 이상된 쇠고기의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명. 토니 프라토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한국 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업계와 한국 정부 측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무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제한 없이 수출하기를 바라며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는 쇠고기를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전 세계에 자부심을 갖고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 ● 버시바우 “쇠고기 재협상 필요성 못느껴”(6/3)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3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사실상 재협상을 요청한데 대해 “지금까지 항상 말해왔듯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느낀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월에 이뤄진 한·미 간 쇠고기협상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잘 이뤄졌으며 합의 이행을 연기할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그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연기한데 대해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수입을 보류할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가능한 빨리 (쇠고기 수입이) 재개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 “美비자면제국 국민도 입국 72시간 전 온라인 등록”<FT>(6/3)

- 미국 비자(입국사증)를 면제받는 유럽과 일본 등 27개국 국민은 내년 1월부터 최소한 입국 3일 전에 미 정부에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비자 관련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보도
- 한국과 체코, 헝가리 등 8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포함되도록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이번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AP통신이 전했다.

### ● 아파치 헬기·주한미군 병력 불변 합의(6/3)

- 이상희(李相熹)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하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 회담에서 게이츠 장관은 특히 “주한미군의 전력을 유지하고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전력 수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대한(對韓)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
- 게이츠 장관은 회담 후 용산기지 내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 부대에 대해 (철수 등) 아무런 결정을 내린 바 없으며 조만간 그럴 계획도 없다”면서 “한국과 충분한 협의가 없이는 병력 수준의 변화나 병력의 대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

### ● 게이츠 “주한미군 병력감축 없을 것”(6/3)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상희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용산기지 콜리어필드 체육관에서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병력감축은 조만 간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한국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협의를 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게이츠 장관은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묻는 질문에 “동맹의 미래, 즉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 밖의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애기들을 했다”며 “주한미군 장비들의 장기간 한국 근무와 2012년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협의했다”고 설명

### ● 한미,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합의 준수(6/3)

- 이상희(李相熹)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한·미는 3일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양국 정상의 합의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방부에서 밝혔다.
-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현 수준(2만8천500명) 유지에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고 합의하고,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의 대한(對韓)방위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 두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2012년 4월 17일을 전환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음.

### ●李국방 “한·미정상 합의사항 이행협의 기대”(6/3)

- 이상희(李相熹)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3일 오전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음. 국방부 청사 2층의 장관 집무실에서 개최된 회담에서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중단합의 이행방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현안들이 집중 논의됐음.
-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신뢰구축 방안과 오는 7월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 기간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미래 비전’의 문안도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현재 미래 비전에 답을 문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 ● 한미국방장관, 사전 의제 조율없이 회담 진행(6/2)

- 국방부 관계자는 2일 “양측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지 않았지만 기존 현안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의제가 설정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진전될 만한 현안이 없다”고 말했다.
- ◇ 예상 의제 = 주한미군 용산기지와 동두천, 의정부의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회담 형식 = 양측은 사전에 의제가 조율되지 않음에 따라 회담 형식을 실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음.



## 나. 한·중 관계

### ● 주중대사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발간(6/4)

- 주중 한국대사관이 4일 중국의 복잡한 노무관련 법규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한 가이드북을 펴냈음. ‘알기 쉬운 중국의 노무관리제도’란 이 책자는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노동계약법 및 시행세칙 등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 ● “한국의 中지진 복구지원 영원히 기억할 것”(6/3)

-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한국의 지원은 한국 국민들의 중국인에 대한 우정을 보여준 것이며 한·중 우호관계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중국 전직외교관들의 모임인 중국 전외교관연의회(聯誼會)의 지페이딩(吉佩定) 회장은 3일 서초구 방배동 한국외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교협회 초청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은 수천년에 걸친 우호교류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그는 이어 “중국 국민들은 한국의 지원에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쓰촨성 지진피해 복구에 대한 한국의 지원에 고마움을 강조

### ● 정부, ‘한미동맹 발언’ 中에 ‘주의’요청 검토(6/2)

-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에 “한미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평가해 ‘외교적 결레’ 논란을 낳은 중국 외교부 측에 조만간 ‘주의’를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중에 2번씩이나 (한미동맹과 관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좋지 않으니 앞으로 좀 조심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다. 미·중 관계

### ● “美, 中의 핵무기·우주개발 계획에 우려”(6/5)

- 베이징을 방문중인 존 루드 미국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직무대행은 이날 중국측과 가진 전략대화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외교관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중국의 핵무기와 우주개발 계획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중국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루드 대행은 “중국은 확실히 핵무기 분야에서 대규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핵무기 정책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 라. 기타

### ● 한-핀란드 정상 “한-EU FTA 조속 체결돼야”(6/5)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마티 반하넨 핀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및 IT(정보기술) 분야 협력 증진방안 등을 논의.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교육분야 국제경쟁력 1위 국가인 핀란드의 교육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뒤 “양국간 학자 및 학생, 대학 등 교육 부문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음.
-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소개한 뒤 “핀란드를 포함한 EU(유럽연합) 회원국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당부
- 두 정상은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한국과 유럽의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희망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과 반하넨 총리는 오찬을 함께 하며 복지, 교육 분야를 비롯한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음.

### ● 한-핀란드 정상회담...IT협력 등 논의(6/5)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방한중인 마티 반하넨 핀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 및 IT(정보기술) 분야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 두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세계 IT 및 이동통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양국이 세계무대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또 조선, 기계공업 등의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한편 인적교류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음.
- 두 정상은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한국과 유럽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과정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음.

### ● 潘총장 이달말부터 日-中-韓 차례로 순방(6/4)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말부터 일본, 중국, 한국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마리 오카베 대변인이 3일 밝혔음.
- 반 총장은 오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아키히토(明仁) 일왕과 잇따라 회담 예정. 반총장은 이어 중국, 한국을 방문한 뒤 일본의 도야코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

### ● IAEA, 한국 핵 투명성 공식 인정(6/3)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004년 발생한 한국의 미(未)신고 핵활동



에 대해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음. 외교부 당국자는 “IAEA는 이달 4일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승인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핵 투명성을 공식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IAEA는 매년 6월 이사회에서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연례보고서(SIR)를 공식 채택해 오고 있다”며 “올해 보고서에 우리나라에 대해 포괄적 결론을 내리면서 모든 핵 물질이 평화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 ● 아랍연맹 사무총장 “한국은 개도국의 빛나는 본보기”(6/2)

- 아르 무사 아랍연맹(AL) 사무총장은 2일 한-아랍 소사이어티가 통상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온 한국과 아랍권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무사 사무총장은 이달 말 예정된 한-아랍 소사이어티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회견에서 “한국의 상품과 기술은 걸프지역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전 아랍세계에서 매우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이집트에서는 한국산 자동차가 가장 잘 팔리는 차에 속한다”며 한-아랍 소사이어티가 양측 관계를 증진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랍 국가에서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경험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한국은 선진국 대열의 정상에 우뚝 선 개발도상국의 빛나는 본보기이기 때문에 많은 아랍 국가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 李대통령,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 접견(6/2)

-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 당선인의 예방을 받고 양국 교류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파라과이가 남미지역 전통 우방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측 입장을 지지해 온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뒤 고위급 인사교류, 경제협력 강화 등을 당부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고, 이에 루고 당선인은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밝히며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에너지, 자원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해 줄 것을 요청

### ● 中-베트남, 정상간 핫라인 개설(6/2)

- 30일 중국을 방문한 농 득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회담 이후 1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일 보도



-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또 양국 간 교류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교, 국방, 공안 등을 비롯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양국의 우호적인 전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 농득 마잉 서기장은 후 주석에게 빠른 시일내에 베트남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으며 후 주석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며 이 요청을 수락. 양국은 또 올해 안에 양국간에 1천350km에 이르는 육상 국경선 획정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기로 합의함.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